



明慧週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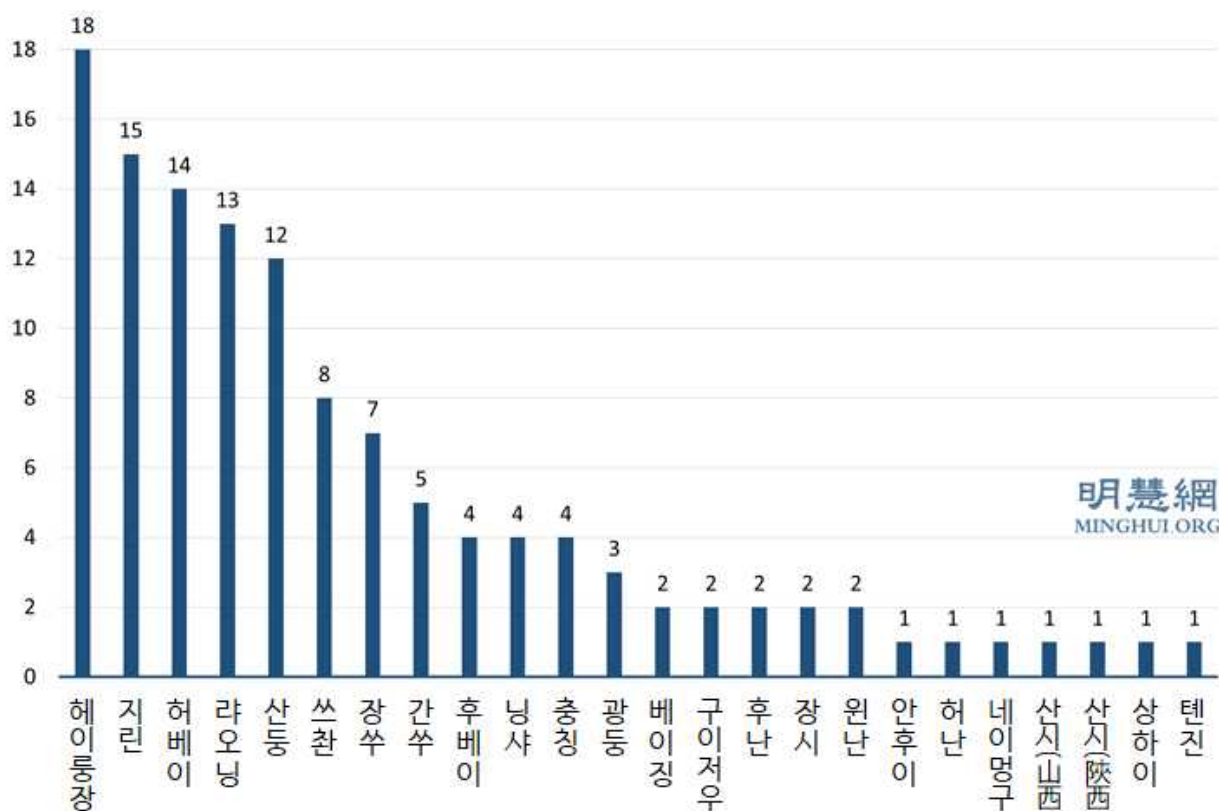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4期(2026.01.23) WWW.MINGHUI.ORG

한글판 1038호 minghui.or.kr

2025년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망자 수 지역별 통계



明慧網
MINGHUI.ORG

▲ 2025년 중국 내 박해 사망 사례는 중국의 25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돼 있다. 악행 순위 상위 10개 지역은 헤이룽장성 18명, 지린성 15명, 허베이성 14명, 랴오닝성 13명, 산둥성 12명, 쓰촨성 8명, 장쑤성 7명, 간쑤성 5명, 후베이성·닝샤·충칭시 각 4명 순이다. 중공이 덮어 감추고 있기에 이 수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주요내용

【해외종합】 ‘전법륜’ 발행 31주년 한국 기념행사 개최

【수련교류】 발정넘할 때 당신은 정말 깨어 있는가?

【시사평론】 26년 박해로 초래된 중국사회 도덕 붕괴에 대한 고찰

【문화예술】 유럽의 전통 문명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가?

〈목 차〉

■ 해외종합

‘전법륜’ 발행 31주년 한국 기념행사 개최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2
---------------------------------	----

■ 수련교류

발정넘할 때 당신은 정말 깨어 있는가?	15
신을 공경하지 않는 용어 사용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19
구원받은 중생의 흐느낌 “왜 이제야 알려주셨나요?”	20
대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사(正邪) 식별은 어렵지 않다	25
어떻게 덴마크 중공 대사관이 저지른 일을 진상을 알리는 소재로 삼을 것인가?	32
천연 온천탕에서의 이야기	34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0

■ 시사평론

26년 박해로 초래된 중국사회 도덕 붕괴에 대한 고찰	45
-------------------------------------	----

■ 문화예술

유럽의 전통 문명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가?	57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법륜’ 발행 31주년 한국 기념행사 개최

글/ 한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2026년 1월 4일, 한국 서울 용산구에 있는 텐티북스(天梯書店)에서 《전법륜(轉法輪)》 출판 3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텐티북스는 2022년부터 매년 1월 4일 《전법륜》 출판 기념회를 열어 1995년 1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법륜》 첫 출판 기념회를 기념하고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며, 《전법륜》은 파룬따파 수련의 지침서로 리홍쓰(李洪志) 사부님께서 중국 각지에서 2년간 설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법륜》은 1994년 중국에서 처음 출판된 이래 50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1995년 1월 4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법륜》 출판 기념행사가 열린 이후 전 세계 수련자들은 매년 1월 4일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각계각층의 현지 파룬궁수련자들도 꽃바구니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중에는 바이오 기업 CEO, 치과의원 원장,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는 수련자들이 직접 창작한 음악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텐티북스 장숙 대표는 환영사에서 “오늘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모두 이곳에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 명의 참석자는 한목소리로 《전법륜》을 낭독하고, 《전법륜》을 읽고 수련한 후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공유했다.

또 《전법륜》 출판 31주년을 맞아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공유한 수련 심득 영상을 상영했다.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언급한 점은 파룬궁 수련 후 원망,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법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쩌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전법륜》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정정화 씨는 말했다. “50대까지 제 마음은 늘 공허하고 막막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상사를 통해 운명처럼 《전법륜》을 만났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제가 그저 지극히 작은 입자임을 깨닫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껴 저도 모르게 얼굴과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대전에서 온 70대 김규순 씨는 말했다. “살다 보면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일이 지난 뒤에야 참을 수 있었다는 걸 깨닫기도 했지만 점차 진선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온 50대 구주영 씨는 《전법륜》과의 신기한 인연을 공유했다. 그녀는 1999년 임신 7개월 때 조산해 아이 목숨이 위태로웠고 본인도 임사 체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10년 동안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어디론가 이끄는 듯했으나 그녀는 매번 거절했다. 2009년 그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밤

잠을 설칠 때였다. 지인이 만나서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하늘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내려와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인이 건넨 것이 바로 《전법륜》이었다. 책을 펼친 그녀는 깜짝 놀랐다. 책 속의 리홍쯔 선생님의 사진이 지난 10년간 꿈에 반복해서 나타난 그분이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그녀는 고통의 근원을 알게 됐고, 마침내 분노와 원망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전법륜》이 자신에게 인생의 등대와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60대 함경연 씨는 남편이 《전법륜》을 추천해 줬는데, 자신의 고통 또한 남편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잦은 고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이혼’이라는 말에 기겁하는 딸을 보고 결국 참고 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전법륜》을 권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깨달았다. “남편의 태도는 사실 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 덕분에 그녀는 남편의 언행을 담담하게 대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함께 책을 읽고 수련한 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고, 때로는 딸이 먼저 《전법륜》을 읽으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건강 회복, 수련자들 감사의 뜻 표해

많은 사람이 《전법륜》을 읽고 파룬따파 공법을 연마하기 시작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광명시에서 온 50대 보건 교사 이하영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전법륜》을 접했다. 현대 의학을 공부한 터라 처음에는 업력(業力)에 관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

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업력에서 비롯된다는 이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자 몸이 거짓말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해시에서 온 40대 이정언 씨는 27세 때 어머니 권유로 수련을 시작해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디스크 질환을 한 달 만에 완치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수련을 중단했다. 10년 뒤인 2024년, 그녀는 다시 수련의 길로 돌아왔다. 그동안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헤맸다. 그러다 한 수련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오면서 다시 수련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사라졌다.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영진 씨(50대)도 건강이 좋아진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손님을 통해 《전법륜》을 알게 됐는데, ‘이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수련을 시작했다. 가부좌 동작이 무척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공하자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수년 된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았다.

박해를 반대하는 중에 대법서적을 소중히 여기다

파룬궁은 1992년 처음 공개 전수된 후 한때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았으나, 1999년부터 중국에서 탄압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 파룬궁수련자가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공산당의 박해 위험에 처해 있다.

50대 김성권 씨는 1994년부터 수련했는데,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5년간 박해를 받았다. 그는 한번은 20여 일간 구금됐을 때 감옥 안에서 어렵게 구한 책 복사본을 읽다가, 기습

수색 때 신발 속에 종이를 숨겼던 일을 회상했다. 뜻밖에 경찰에게 발각됐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의 머리를 때리며 훈계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발밑에 둘 수 있어?”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전법륜》 등 수련 서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아끼게 됐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전법륜》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장에서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전법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선원(神韻) 동급 규모 8개 예술단이 미국, 프랑스,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등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을 펼쳤으며, 여러 도시에서 티켓이 매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1월 7~18일, 선원예술단이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미국 수도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10회 공연을 펼쳤다. 1월 7일, 미국 메릴랜드주 벤자민 크레이머(Benjamin Kramer) 상원의원은 선원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에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선원예술단이 20년 동안 이룩한 감탄을 자아내는 예술적 성취, 전 세계 관객에게 영감을 주고 영원한 전통을 드높인 공로를 표창하기 위함이다. 1월 8일 저녁, 미국 노스다코타주 하원의원 줄리 페도착(Julie Fedorchak)과 남편 마이크 페도착(Mike Fedorchak)이 워싱턴DC에서 함께 선원을 관람했다. 선원이 거의 사라진 중국

전통문화를 부활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는 것에 대해 페도착은 극찬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들에게도 꼭 보러 오라고 권하겠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너새니얼 모란(Nathaniel Moran)도 1월 8일 저녁 선원을 관람했다. “이것은 기세가 드높은 예찬입니다. 기세가 웅장하고 감동이 깊습니다.” 그는 선원이 명실상부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선원’이라는 이름은 ‘신이 춤을 출 때의 아름다움’을 뜻하는데, 이 예술단에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선원이 “중공에 의해 잘못 억압된 중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이는 무신론과 공산주의에 용감하게 반격하는 두려움 없는 서사입니다”라고 말했다.

선원의 순선순미(純善純美)한 공연은 선(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앙과 인성, 구원의 힘을 보여줘 각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과 관계된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선원순회예술단은 폴란드 로즈의 로즈 대극장(Grand Theater In Łódź)에서 총 5회 공연을 펼쳤으며, 입장권은 미리 전석 매진됐다. 선원을 보기 위해 땀 흘려 얼어붙은 날씨의 폴란드 각지에서 각계 엘리트들이 관람하러 달려왔다.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과 수준 높은 관객층은 극장 측에 충격을 줬다. 선원예술단이 다시 로즈를 방문한 것에 감사하기 위해 로즈 주지사는 특별히 선원예술단에 ‘명예 후원(Honorary patronage)’을 수여했다. 폴란드에서 이 영예는 예술적 수준이 매우 높고 준비가 철저하며 명망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에 주로 수여된다.

1월 11일 오후, 폴란드 가톨릭 신부 안제이 지에미에시키키에비치(Andrzej Ziemięski)가 친구 리샤르드 콘찰(Ryszard Kończal)과 우치에서 선원을 관람했다. “(선원) 공연의 영적인 계발은 매우 현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달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에 끊임없이 감동했습니다! 공연은 사람들의 내면의 영성과 아름다운 품격을 길러주며, 이 진리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에미에시키키에비치 신부는 감동하며 말했다. “저는 그들이 마음과 춤, 기쁨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미술전이 벨기에 제4대 도시 프랑스어권 리에주, 유명한 생 랑베르 광장(Place Saint-Lambert) 옆 생 미셸 쇼핑센터(I'ILOT Saint-Michel)에서 전시됐다. 진선인 미술전은 세계 각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예술가들이 창작한 회화 작품으로, 예술가들은 붓을 통해 진선인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사색, 그리고 박해에 직면했을 때 보여준 확고함과 자비를 보여줬다. 한 달간의 전시 기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림 속 수련자가 신념을 지키고 악을 이겨내는 정신에 깊이 감동했다. 한 관람객은 “그것은 선(善)에 관한, 수행에 관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면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관람객들은 작품이 전달하는 파룬궁수련자의 정신에 감동했으며, 어떤 관람객은 파룬따파 서적 ‘전법륜(轉法輪)’이나 ‘파룬궁(法輪功)’을 구매했고, 1천여 명이 박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73세 베르나데트(Bernadette)는 현지에 거주하는 벨기에인으로

로, 다년간 예술 복원 회화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그녀는 전시장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거의 모든 그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표정은 집중하고 감동한 모습이었다. 또 때로는 친구와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전시회예요.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베르나데트는 말했다. “모든 그림에서 강렬한 영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전시가 예술적 차원에서 그녀를 감동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깊이가 있다며 말했다. “이 작품들은 종교와 정신 세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적절해요. 모든 작품이 어떤 내면의 것을 전달하고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끼게 해요.” 그녀는 전시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변하기를, 사고방식을 바꾸고 더 평화로워지기를, 타인을 사랑하고 나누며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해요. 만약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깐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가 1월 13일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캐나다 파룬따파학회(이하 ‘학회’)는 총리가 중국 고위층과 회담할 때, 중국공산당(중공)이 지속적으로 파룬궁 탄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 국내로까지 확장된 초국가적 탄압 행위, 그리고 다수의 캐나다 시민의 가족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불법 구금당한 문제를 엄정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 대변인 조엘 칩카(Joel Chipkar)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의 목소리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영향을 받은 캐나다 가정들을 지지하며, 중공에게 캐나다는 어떤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할 것입니다.” 칩카는 중공의 파룬궁에 대

한 박해가 중국 국내에서 여전히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칩카는 학회가 특별히 총리에게 중공에 의해 불법 구금, 선고 또는 실종된 10명의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한다. 작년 말 기준, 이미 65명의 캐나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공동 성명에 서명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6년간의 지속적인 박해와 점차 확대되는 초국가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중공의 캐나다 내 초국가적 탄압과 그것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끼치는 지속적인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관련 부서와 만나 소통할 것을 권장했다.

매년 겨울 벵골력 ‘포쉬’ 달의 일곱째 날이면 인도 산티니케탄에서는 서벵골주 최대 장터인 ‘포쉬 멜라’가 열린다. 파룬궁수련자들은 212km를 달려 장터에 부스를 마련했다. 이들은 수만 명의 방문객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며 자신들이 큰 혜택을 얻었던 이 공법을 다른 인도인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생물 교사인 차트라파티 무르무(Chatrapati)는 파룬따파 수련이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준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전법륜’과 ‘파룬궁’을 구매했다. 수산 부서 공무원 나바미타 고쉬(Nabamita Ghosh)는 처음에 벵골어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파룬따파를 알게 됐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생활 속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내면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칭다오시 파룬궁수련자 쑹원(宋雲)은 2024년 11월 초 전후 경찰에게 납치된 후 줄곧 소식이 끊겼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쑹원은 이미 작년에 현지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에서 4년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산둥성 여자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고 있다. 이는 그녀가 중공에게 세 번째 불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쑹원은 약 60세로 칭다오시 스난구 톈다오에 거주한다. 수년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 요원들에게 납치, 불법 강제노동, 불법 판결을 당했으며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산둥성 지난시 라이우구 파룬궁수련자 류얼니(劉二妮)가 2025년 8월 29일 아침 경찰에게 집에서 납치된 후, 구금 및 모함 절차를 거쳐 징역 3년 4개월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중공 인원은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며 5천 위안을 갈취했다. 류얼니가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7월 25일 저녁, 류얼니는 타이안시 화마완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타이안시 다이웨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에 납치돼 가혹한 심문과 자백 강요를 당했고 타이안시 성좡 구치소에 구금됐다. 2014년 10월 8일, 류얼니는 타이안시 다이웨구 법원에서 비밀 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산둥성 옌타이시 60대 파룬궁수련자 성펑링(盛豐玲)이 푸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주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서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성평링은 올해 66세로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을 당시 신체 상황이 극히 나빠 거의 전신 각 기관에 병이 있었다. 수련 후 모든 질병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심신이 일신됐다. 2025년 7월 15일 오전 10시, 성평링은 푸산구 허빈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다수의 대법서적과 USB 여러 개를 압수했다. 그녀는 파출소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았다. 오후 5시 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서명을 거부했으나, 강제로 ‘처분보류’ 조치돼 귀가했다. 이후 허빈루 파출소, 푸산구 검찰원과 법원은 계속해서 그녀를 사법적으로 모함했다. 2025년 11월 28일, 그녀는 다시 경찰에게 납치된 후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으며, 푸산구 검찰원과 법원에 의해 모함당했다.

산둥성 웨이팡시 웨이청구의 70대 파룬궁수련생 웨이더후이(魏德惠)는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산둥성 여자감옥 11감구(監區)에 수감돼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확인 중이다. 웨이더후이는 올해 76세로 한쪽 손에 장애가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그녀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보게 했고, 심신 양면에서 큰 도움을 줬다. 2019년 10월 22일 새벽, 웨이청 남관 파출소 소속 경찰 8~9명이 웨이더후이의 집에 들이닥쳐 두 개의 문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침입했다. 두 명의 남자 경찰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고, 다른 경찰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법상(法像), 대법서적, ‘명혜주간’ 등을 모두 압수해 갔다. 이어서 그들은 웨이더후이의 장애가 있는 손을 뒤로 수갑 채운 뒤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남관 파출소로 끌고 가 사진

촬영과 지문·발자국 채취를 했다. 그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21년에 이르러서야 웨이더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웨이청 공안이 이른바 ‘처분보류’ 절차를 밟았고, 1년 후에는 몰래 이를 ‘거주지 감시’로 변경했으며, 2021년 5월 말에는 그녀를 불법적으로 검찰에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린성 쓰핑시 이통만족자치현 파룬궁수련자 류주(劉柱)는 61세로 다구산진 마자툰에 거주한다. 2025년 3월 3일, 지린성 위수시 공안국 국보대대 경찰 판리밍(范立明) 등이 타지역인 이통까지 와서 그를 강제로 끌고 갔으며, 위성 수신용 ‘솔뚜껍(위성안테나)’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납치된 이후 류주는 줄곧 위수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5년 12월 하순, 위수시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이미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롄시 사허커우구의 63세 파룬궁수련자 명셴팡(孟憲芳)은 2025년 3월 2일 경찰에 납치돼 야오자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으며, 각종 학대를 당했다. 7월 23일, 그녀는 구치소에서 강제로 불법 화상 재판을 받았고, 1년 6개월 형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명셴팡은 항소했으나 12월 25일 다롄시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그녀의 오빠 명셴치(孟憲啟)는 친우 변호인으로서 이 기간에 불법 구류와 지역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다.

발정념할 때 당신은 정말 깨어 있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며칠 동안 어머니 수련생이 발정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로는 손바닥이 쓰러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혹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오전 발정념에 들어가기 전 내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휴대폰(전화카드를 꽂지 않고 미리 처리해 둔 전용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고 내가 발정념하는 전 과정을 녹화했다.

발정념이 끝났을 때 나는 무척 자신감이 있었고, 당시 머리가 아주 맑다고 느껴 발정념 효과도 좋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20분 동안 거의 전부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3분이 지나자 머리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8분쯤 됐을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기울였으며 손 모양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10분쯤 되자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이후로는 거의 잠든 상태였다. 앞뒤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목을 바르게 유지하던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발정념이 끝난 뒤 나는 곧바로 법공부를 했는데 조금도 졸린 느낌이 없었다. 낮 11시 55분이 되자 다시 휴대폰의 녹화 기능을 켜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깨어 있게 했다. 발정념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의식이 흐린 상태는 아닌지 세심하게 살폈고 스스로

는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마친 뒤 다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발정념 후반부에서 역시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8분쯤 됐을 때부터 손바닥이 작은 폭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끝날 때까지 줄곧 반쯤 잠든 상태였다. 오전에 했던 발정념과 비교하면 상태가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사악(邪惡)을 제거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나는 최근 내 수련 상태를 돌아보며 반성해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다시 차분히 되짚어 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다. 아침 일찍 연공하는 시간이 안정되지 않아 가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연공 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인이 무엇일까? 최근에는 대체로 전날 동태망(動態網)의 뉴스나 간징월드(乾淨世界)의 영상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줄곧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요즘 발정념 횟수도 적었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발정념을 할 때 의식이 흐려지는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 자신의 공간장(空間場)을 깨끗이 청리하지 못해 사악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난(難)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얼마 전 어머니 수련생이 내게 발정념을 할 때 손바닥이 쓰러지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을 일깨워 주셨고, 이틀 동안 한 시간씩 발정념을 견지하자 상태가 바로 조정됐다. 그런데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교란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었고, 더 무서운 점은 내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정념 효과가 꽤 좋다고 느꼈고, 마친 뒤에도 머리가 맑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느낌은 내가 발정념 상태가

좋은 때의 감각과 매우 비슷해, 세심하게 느껴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현혹적이었다.

이번 발정념에서 명석하지 못했던 문제를 정리해 보니 다음 네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발정념을 중시해야 한다

발정념은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은 분명하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발정념도 충분히 많이 해야 하며, 동시에 그 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고 잡념이 떠오르거나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지나간다면, 그것은 정념이 아니며 사부님의 정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없다.

2. 자기 수련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들의 교류 글과 주변 수련생들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최후에 이룰수록 우리 수련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기 수련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늘 과거의 자기 수련 상태와만 비교하며 조금만 정진하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사부님의 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견주고, 명혜망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련생들과 비교해야만 이 시기 정법 노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사악이 만들어낸 ‘발정념 시 확실히 깨어 있다’라는 가상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어머니께 발정념을 하실 때 의식이 흐려지고 손바닥이 쓰러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

셨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작은 다툼까지 생겼다. ‘어째서 믿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의식이 흐려진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찌 거짓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휴대폰 속에 찍힌 내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 어머니께서 설명하셨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사악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발정념 시 확실히 깨어 있다’는 가상(假相)은 너무도 실제 같았다. 사악은 이런 방식으로 대법제자를 교란해, 대법제자가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정법의 세 가지 일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수단은 참으로 교활하고 비열하다. 사악은 대법제자에게 사부님께서 부여하신 거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발정념으로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일이 너무도 쉽다는 사실을 알기에, 바로 이런 가상으로 대법제자를 미혹시키는 것이다.

4. 수련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발정념 문제를 선의로 일깨워 주고 올바르게 대해야

이 문제 역시 어머니가 발정념을 하실 때 손바닥이 쓰러지는 현상에 의문을 가지신 데서 촉발됐다. 나는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다. “법공부 팀에서 발정념을 할 때는 졸리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전혀 졸리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아주 좋다고 하셨다가, 잠시 생각해보시더니 “다음번엔 내가 졸면 수련생들에게 좀 깨워달라고 해야겠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법공부 팀에도 발정념을 할 때 제때 깨워주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떠올리게 됐다. 처음 이 팀에 참여했을 때는 서로 익숙하지 않아 말하기가 다소 어색했다. 이후 점차 익숙해지면서 발정념을 할 때 손바닥이 쓰러진 수련생을 가볍게 건드려 주기도 했지만, 그 수련생이 자주 같은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어느새 가끔만 깨워주게 됐다.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整體, 공동체)이며, 발정념 시 깨어 있지 못한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는 수련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선의에서 우러난 조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언을 받은 수련생 역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대하고 서둘러 이 난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수련생 여러분이 발정념을 하실 때 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특히 혼자 발정념을 하실 때는 더욱 주의해, 사악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대법의 한 입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잘 완수하시기를 바란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신을 공경하지 않는 용어 사용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어제 교류문 한 편을 봤다. 이 글은 아주 잘 썼지만, 그중 한 군데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니보살과하(泥菩薩過河, 진흙 보살이 강을 건너다)”라는 말은 속인이 자주 쓰는 속담이자 혈후어(歇後語, 앞말만 하면 뒷말은 미루어 알 수 있는 말)인데, 표현 속에 신을 공경하지 않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바뀌어도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공 악당 통치하 수십 년간 무신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각 방면에서 사람들의 신에 대한 신앙이 차단됐다. 그중 한 측면이 일상 용어 속에 신을 공경하지 않거나 신과 수련생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혈후어, 속담 등이 대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면서 은연중에 신에 대한 경앙심(敬仰心)을 잃게 됐고, 수련생에 대해서도 조롱과 멸시로 가득 차게 됐다. 명사에서조차 매우 함부로 신불(神佛)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데, ‘불도장(佛跳牆)’, ‘불수과(佛手瓜)’, ‘나한과(羅漢果)’, ‘나한 사탕수수’ 등이 있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는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제자들도 이런 측면의 바르지 못한 요소를 닦아 없애도록 주의해야 하며, 글을 쓰거나 수련 체험 교류를 할 때, 그리고 대화할 때 신을 공경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용어와 단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구원받은 중생의 흐느낌 “왜 이제야 알려주셨나요?”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정법(正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다른 공간에서 사람을 통제하던 사악이 매우 적어졌으며, 중국인들의 정의와 양심이 점차 되살아나 대다수가 진선인(眞·善·忍)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련생들이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겪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장면들은 우리에게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인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늘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겪은 몇 가지 일화입니다.

1. 한 중년 여성이 중국공산당(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한 뒤, 수련생 언니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주셨나요? 왜 이제야 알려주셨나요?” 수련생은 “아마 인연이 이제야 닿았나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을 다그쳐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중생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한 노인이 삼퇴 후에 수련생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리 대사님의 제자답군요! 바로 이렇게 그분의 대법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노인의 말은 정말 맞습니다. 대법제자는 마땅히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대법을 널리 전하고 실증해야 합니다.

3. 한 60대 농민은 삼퇴한 뒤 수련생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서 이런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도 모를 뻔했어요.” 수련생이 사존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사존께 감사드리라고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책임이 정말로 막중합니다.

4. 한 수련생의 대학 동창은 정청급(正廳級) 관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문화대혁명 이전에 어느 지역의 전원(專員)이었고, 어머니 역시 낮지 않은 관직에 있었으며, 아내는 대학교수입니다. 우

연히 이 동창 부부를 만난 수련생은 진상을 알렸고, 부부 모두 삼퇴했습니다. 이 정청급 동창은 수련생에게 그의 노모도 대법을 수련하고 있다고 몰래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노인의 수련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련생은 몇 년 전 동창 모임에서 이 친구가 “연공하는 사람이 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에 연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연공인은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습니다. 대법제자 중에는 사회 밑바닥에 처한 사람도 적지 않은데, 학력이 높지 않거나 지위가 없을 수 있지만, 정의와 양심이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5. 한번은 수련생이 신호등 파란불을 기다릴 때 40대 정도의 남성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수련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리하게 알아차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련생을 인파에서 멀어지게 했고, 목소리를 낮춰 자신이 현지 주둔군의 부단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으며 그 자신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인터넷 우회 접속을 통해 파룬궁 진상을 많이 보았고,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도 읽어 삼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감시가 너무 엄격해 탈퇴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 수련생은 그가 가명으로 삼퇴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고민을 덜어주어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악당이 그의 속마음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6. 한번은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 수련생이 60대 남성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악당의 논리를 그대로 읊어대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10여 명이 구경

하고 있었는데, 40대 정도의 키 큰 여성이 큰소리로 그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파룬궁이 어때서요? 당신에게 무슨 피해라도 줬나요? 신앙 자유라는 말을 모르세요? 당신과 다르다고 계속 그러실 건가요? 당신은 듣기 싫어도 나는 듣고 싶거든요.”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남성을 질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그는 급히 달아났고, 수련생은 그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삼퇴했고 수련생에게 남편의 삼퇴도 도와달라며 자신이 꼭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와 양심이 있는 여성이었으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7. 한번은 수련생이 장터에서 글을 배우지 못했고, 아무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수련생이 대법의 기본 진상을 알려주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이렇게 좋다니!” 수련생은 할머니에게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고, 글을 써드려도 읽지 못해 수련생에게 여러 번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련생은 할머니가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함께 읽었고, 이 일은 ‘진상을 듣는 사람이 아무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말해 봐야 소용없다’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8. 한 수련생은 사복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고, 경찰은 교통카드를 통해 수련생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진상을 알릴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출소 소장은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오후에 바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수련생에게 빌려주게 해 그녀가 가족에게 전화로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가택수색을 할 텐데, 집에 파룬궁 관련 종이 한 장만 있어도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가택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7일째 되는 날 수련생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독한 경찰도 있지만 좋은 경찰도 있습니다. 이 파출소 소장은 정의를 되찾은, 구원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9. 한 수련생은 몇 해 전 친정과 시댁 식구 90여 명에게 진상을 알려 모두 삼퇴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 사이 손주 세대가 자라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 5월, 수련생은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조카손주 14명을 권유해 탈퇴시켰습니다. 이 100여 명은 모두 진선인을 인정하고 공산 악당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삼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의 사례가 대다수 중국인이 구원받고 제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법 속에서 대법제자가 해당 지역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이해져서는 안 되며, 실패해서도 안 되고, 유감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사존께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관건이며, 마지막일수록 더 정진해야 한다고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동북 지역에는 ‘바구니를 짜고 광주리를 엮는 것은 모두 마무리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이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대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사(正邪) 식별은 어렵지 않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는 중국 대법제자입니다. 1999년 ‘7·20’ 이래 우리 지역에는 대법 수련자의 명의로 함께 모이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리(李) 모 씨를 핵심으로 삼았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리 씨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거주했으며, 심지어 20~30명이 리 씨 친척의 집 한 채에 몰려 살기도 했습니다. 리 씨 곁으로 몰려든 추종자는 많을 때 100명가량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 씨의 요구에 따라 따로 한 세트를 만들어 행했습니다. 리 씨는 ‘뼈 사이 누르기(點骨縫)’ 방식으로 사람들의 병을 봐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또한 대법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고 명혜망 문장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부님의 정법 수련과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맹목적으로 리 씨의 안배와 지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2년 전 리 씨(70대)가 이발소에서 갑자기 병이 발작해 사망했습니다. 그제야 리 씨(배후의 사악한 영체)에게 통제받던 이들이 점차 현지 대법제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 씨가 생전에 저지른 행위가 난법(亂法)한 성질이라는 점에 대해 여전히 인식이 모호하며, 여전히 리 씨를 극력 옹호하며 정신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수련생들이 전체적

인 차원에서 리 씨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난법하는 언행을 자각적으로 제지하는 정념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리 씨(배후의 사악한 영체)에게 조종당했던 이들을 깨워 다시 대법 수련의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는 현지의 일부 수련생을 소집해 리 씨의 문제와 그 성질에 대해 몇 차례 토론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집필자가 이를 정리해 명혜망에 보냅니다. 명혜망을 통해 난법하는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현지의 수련 환경을 정화하며, 교훈을 얻고 배로 보충해 앞으로의 수련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합니다.

1. 리 씨는 대법제자인가?

리 씨(배후의 사악한 영체)에게 속아 그의 거처에서 법공부와 연공을 했던 여러 수련생의 증언에 따르면, 리 씨는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뼈 사이 누르기’ 방식으로 병을 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C 수련생의 말에 따르면 한번은 그가 G의 집으로 법공부를 하러 갔을 때 마침 리 씨도 도착했습니다. G가 리 씨에게 “C의 어깨가 아프니 좀 치료해 달라”고 말하자 C가 반응하기도 전에 리 씨는 연필로 C의 손목에 점을 찍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C는 리 씨가 점을 찍은 후 어깨가 더 아파졌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가 병을 봐주고 치료해 준 현상은 어쩌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관성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치료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하며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C에 따르면 리 씨는 자신에게 속은 이들에게 자신이 리홍쑤(李洪志) 사부님의 ‘제1대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의 자아 팽창적인 발언에 대해 대법으로 대조해 보면 바로 정사(正邪)를 알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법(大法) 사부는 오로지 한 사람뿐이다. 입문한 선후는 가리지 않는바 모두 제자다.” 또한 사부님께서서는 모든 설법에서 누가 대제자이고 누가 소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님). 또한 상당수 추종자는 리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80대 노인조차 그렇게 불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병을 봐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연공장에 와서 병을 보게 하는데 이는 모두 대법을 파괴하는 짓이다. 이것은 하나의 매우 엄숙한 문제로서 누구도 이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곧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만약 보도원이 이렇게 했다면 즉시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은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파룬따파의해-창춘 파룬따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사부님의 대법은 정사를 가늠하고 식별하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정사를 구분할 때는 절대 사람 마음과 사람 생각, 사람의 정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에 대조해보면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리 씨는 사부님의 ‘제1대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 제자도 아니며 대법을 파괴한 난법자입니다.

2. 리 씨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어떻게 교란했는가?

사부님께서서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들에게 법공부, 발정념, 진상알리기와 중생구도라는 세 가지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리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1) 법공부 면에서 리 씨는 추종자들에게 『전법륜』만 공부하게 하고 ‘7·20’ 이후의 해외 설법은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법을 바꿔 사부님의 ‘7·20’ 이후 해외 설법이 전달되면 추종자들과 딱 한 번만 같이 읽은 뒤 설법집을 모두 거두어 자신이 보관하며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의 글자를 수정하라고 하신 후에도 리 씨는 추종자들에게 글자 수정을 못 하게 했고 수정된 『전법륜』을 공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정 전의 『전법륜』이 ‘원시 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5월 24일 이후 새로운 『논어(論語)』가 발표됐습니다. 사부님께서 『각지 설법13』 ‘2015년 미국서부법회 설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구(舊) 『논어』를 일반 경문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럴 필요 없다. 구(舊) 『논어』는 문제가 없지만, 기왕 대체했으니, 그럼 곧 대체한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그것을 소각했는데, 일반 경문으로 대하기에도 이 과학을 너무 높게 놓았기 때문이다. 당초에 단지 현대 이 과학 관념이 아주 강한 이 사회 중에서 사람을 구하는 데에 썼을 뿐이며, 그것을 이런 위치에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런 위치에 놓았고, 아주 높이 놓았다. 와, 이처럼 큰 법인데, 작디작은 지구가 다 무엇인가. 그러기에 너무 높게 놓으면 안 된다.”

그러나 리 씨는 추종자들에게 구판 『논어』가 인쇄된 『전법륜』만 공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주변 수련생들의 거듭된 권유로 리 씨는 구판 『논어』를 그대로 둔 채 신판 『논어』를 그

앞에 붙이게 했고 여전히 글자를 수정하지 않은 『전법륜』만 공부하게 했습니다.

『전법륜』의 글자 수정에 대해 사부님께서서는 『정진요지 3』 ‘수정’이라는 글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리 씨는 2015년 5월 24일 이후에도 일부러 글자를 수정하지 않고 구판 『논어』가 실린 『전법륜』 40권을 찾아내 추종자들에게 공부하게 하며 이를 ‘원시 대법’이라 칭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하신 우주 대법은 무수한 대궁과 천체, 우주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지구상의 작은 먼지에 불과한 리 씨가 무슨 자격으로 사부님의 우주 대법에 대해 망령되이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까? 이는 배후에 있는 난법귀(亂法鬼)의 사주를 받았기에 그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법을 파괴하는 엄중한 난법 행위입니다.

2) 발정념 면에서 리 씨는 어떻게 난법했습니까? 사부님께서서는 발정념에 대해 전용 경문을 쓰시어 대법제자들에게 구결과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따로 한 세트를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미혹과 기만이며 사부님을 속이고 난법하는 짓입니다.

3) 진상 알리기와 중생구도 면에서 리 씨는 어떻게 난법했습니까? 사부님께서서는 ‘7·20’ 이후 발표하신 해외 설법에서 대법제자의 사명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추종자들이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대법은 자비롭지만 위엄이 공존합니다. 리 씨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는 우리도 보고 싶지 않은 비극일 것입니다.

3. 리 씨는 어떻게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추종자들을 속이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1999년 ‘7·20’ 이후 리 씨(배후의 사악한 영체)에게 조종당한 추종자들은 많을 때 100명이 넘었습니다. 리 씨 사후 상황이 좀 변해 지금은 일부 인원이 리 씨의 집 근처에서 거주하지 않고 단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리 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 씨의 난법 성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 씨의 난법 사건이 이토록 규모가 크고 오래 지속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다른 공간 사악한 요소의 간섭과 파괴입니다. 사악한 요소는 리 씨의 과시심과 통제욕을 이용했고 리 씨의 인신(人身)을 이용해 우리 지역에서 정법을 교란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2) 리 씨를 따랐던 이들에게는 숭배 심리, 맹종 심리가 있었고 공능과 표면적인 모습에 집착했습니다. 법을 스승으로 삼지 못하고 사람 마음과 사람 생각,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문제를 보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두려움이 컸기에 『전법륜』만 공부하고 진상을 알리지 않으며 사람을 구하지 말라는 리 씨의 주장이 자신들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져 함께 섞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추종자들은 구류, 강제노동, 징역 등 박해를 겪은 후 법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리 씨의 거처로 찾아가 그의 언설에 미혹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단체로 식사하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것이 마치 ‘전수(專修)’ 환경인 양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3) 현지 정체(整體) 차원에서 리 씨의 난법 사건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고 정념정행으로 저지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수련생들은 ‘나와는 상

관없는 일’이라며 방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1999년 ‘7·20’ 이후 우리 지역의 협조인들과 대다수 수련생은 현지 정체 차원에서 강력한 정념의 장을 형성하지 못했고 난법 요소를 불러들이는 사람 마음과 집착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4) 리 씨가 사람들을 통제하며 스스로 해외 설법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명혜망 문장을 보지 못하게 하며 주변 대법제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을 폐쇄적으로 가두어 조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4. 교훈을 얻고 배로 보충하자

리 씨의 난법 사건은 20여 년간 지속되며 현지의 수많은 수련생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손실과 해악은 실로 막대하며 교훈은 뼈아픕니다. 리 씨 본인이 다른 공간 사악한 요소의 유혹과 통제에 넘어가 타인의 수련을 방해하고 지체시킨 결과 응보가 몸에 닥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리 씨를 따랐던 이들 역시 20여 년의 수련 시간을 낭비하고 그릇된 길로 빠졌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지금이라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현지 협조인들과 다른 수련생들도 리 씨와 그 추종자들을 제때 강력하게 저지하고 깨우지 못해 이토록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서로 돕고 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부님과 대법, 그리고 중생에게 미안한 일이며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 글이 현지의 모든 수련생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공부와 교류를 통해 다른 공간의 난법 요소를 제거하고 각자 자신을 바로잡읍시다. 서두르십시오.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5. 리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우리는 리 씨와 알지도 못하며 사적인 원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쓴 근본 목적은 개인을 공격하거나 세력 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랫동안 대법에서 벗어나 심지어 사악한 영체에게 조종되어 대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침묵하며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리 씨는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감정이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 중의 문제, 즉 대법을 옹호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며 중생을 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중의 문제를 사람의 관념으로 보고 가늠한다면 대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관점이나 표현 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련과 자비가 부족한 탓입니다. 결코 악의가 있거나 고소해하는 마음이 없으니 리 씨의 가족과 지인분들께서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덴마크 중공 대사관이 저지른 일을 진상을 알리는 소재로 삼을 것인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6년 1월 14일, 중국공산당(중공) 산하의 넷이즈, 텐센트 등 여러 웹사이트가 덴마크 주재 중공 대사관의 성명을 전재해 선원(神韻)을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하며, 덴마크 동포들에

게 선원을 보지 말라고 선동했고, 지난 수년간의 진부한 논조를 되풀이했다. 내가 검색해보니 최근 라트비아, 시드니, 멕시코, 일본 등 주재 중공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도 유사한 소식이 있었다.

아내가 어젯밤 퇴근해 집에 와서 나를 보고 이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이런 보도가 또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분이 좋지 않고 몹시 괴로워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가 잔혹한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말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암암리에 계속 이런 짓을 해오지 않았나요? 겉보기엔 잠잠한 듯해도 우리집에 대한 감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고, 악당의 중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더욱 심해졌지요. 심지어 날 감시하던 경찰들조차 위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오히려 좋은 일로서,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가한 매번의 박해와 공격은 결국 모두 대법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국내의 대다수 사람은 아직도 ‘선원’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선원을 홍보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지금 국내 중국인들, 특히 젊은 층은 각성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선원 정보를 찾아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쩌면 선원예술단이 귀국할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내는 원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 말을 듣고는 곧 기분이 좋아져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모두 대법을 수련한 뒤에 얻은 지혜가 아닌가?’ 사부님께서서는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정진요지 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녀처럼 억울함과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는 중공의 추악한 짓을 우리가 진상을 널리 알리는 소재로 삼는 법을 배웠다.

천연 온천탕에서의 이야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천연 온천탕 근처에 살고 있어 자주 목욕하러 갑니다. 이곳은 온천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매번 갈 때마다 탁상달력,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진상 정기간행물, 연화, 호신부(護身符) 등 대법 진상 자료를 지니고 갑니다. 매번 목욕하러 갈 때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진상을 듣고 구원받으려는 이들을 접하게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상을 깨달은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목욕하러 들어서기만 하면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진상을 이해한 뒤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한 사람들이며, 어떤 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냥 좋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이는 곧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1. “그는 당신보다 5년하고도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충(叢) 씨는 한 마을의 중공 당서기로, 그 역시 자주 온천에 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진상을 알렸으나 그는 별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상 탁상달력 한 부를 건넸고 그는 이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그 달력을 탁자 위에 두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저를 보면 멀쩡이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또한 법을 위해 온 존재이니 사부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기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사부님께서 새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셨을 때, 저는 그에게 한 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신문을 집에 가져가 잘 읽어보시게. 자네에게 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속일 수도 없는 내용일세. 자네처럼 분별력 있는 사람이 설마 속기야 하겠는가?” 그는 제 말을 듣고 돌아가서 잘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충 씨도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곁으로 다가와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신 그 신문을 읽어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한 것이 어쩔 그렇게 정확한지, 정말 그렇더군요! 너무도 잘 썼습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예전부터 말해주고 싶었으나 자네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 않나. 지금 받아들여도 늦지 않네. 이제 깨달았으니 ‘충○○’라는 가명으로 그 사악한 물건에서 탈퇴해 평안을 지키시게.”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말했습니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면 되네.”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쑨(孫)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충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사람은 당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또한 이미 진상을 깨달은 사람일세. 자네보다 5년하고도 더 일찍 깨달았다네.” “아니, 그도

이미 깨달았습니까?” “쑤 사장은 작은 사장으로, 그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80여 명에 이른다네. 그는 5~6년 전에 이미 진상을 이해하고 삼퇴했다네. 어떤 진상 자료든 모두 원하며, 게다가 더 달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보여주어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네.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새 경문도 5번이나 읽었다네.”

2. “요즘 병원은 거의 도살장이나 다름없어요”

장(張) 씨는 퇴역 군인으로 나이가 60에 가까우며 중공 악당(惡黨)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2, 3일에 한 번씩 목욕하러 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악당의 거짓말에 속은 탓인지, 제가 파룬궁을 연공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를 매우 불친절하게 대했고, 늘 멀리 떨어져 있으며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상을 말하려 하면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보지 않고, 빈정대고 비꼬는 말로 저를 대하며 매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에게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2025년 설을 앞두고 목욕하러 온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다시 총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탁상달력 한 부를 꺼내 그에게 주었고, 그는 매우 기뻐하며 연신 감사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더니 모두 갖고 싶어 했기에, 저는 한 사람씩 나누어 주면서 삼퇴하면 평안하다는 것,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는 것 등을 알려주었고, 집에 돌아가 꼭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의 사회인가’ 같은 글들을 잘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새 달력을 받아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했습

니다. 저는 “감사하려면 우리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달력 이렇게 예쁜데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당신 사부님이 주신 건가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달력은 모두 우리가 직접 돈을 내서 만든 것이고, 우리 대법제자들이 사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닌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로 몸에 병이 없어졌고, 20여 년 동안 저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적도 없고 진통제 한 알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의료비만 따져도 27년 동안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절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병원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치료도 하기 전에 검사비만 수천 위안이 듭니다. 우리가 아낀 의료비 중 일부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부님께서 직접 돈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고 좋은 마음가짐을 주셨으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사실상 사부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셈입니다. 돈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한마디씩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병원은 너무 어둡고, 완전히 도살장 같아요”라고 했고, 어떤 이는 “공산당은 너무 나쁘다. 좋은 약은 보험이 안 되고, 보험 되는 약은 좋은 게 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공산당은 인간성도 없고, 서민들을 부추처럼 베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 씨가 앉아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탁상달력이 한 부 더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장 씨는 곧바로 일어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나쁜데 하늘도 그것을 멸하려 합니다. 그들이 탐한 돈을 당신에게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탈퇴해서 평안을 지키세요. 설 명절인데 누가 평안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입당할 때 ‘언제든 그것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했던 그 독한 맹세를 버리고, 정상적인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장천보(張天保)’라는 가명으로 탈퇴하세요.” 장 씨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 이름 좋네요. 좋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탈퇴했구나. 또 하나의 생명이 구원받았구나!’ 그 이후로 장 씨는 저를 볼 때마다 늘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3. 사장이 류 씨를 해고하다

류(劉) 씨는 남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를 알게 된 뒤 저는 대법 진상을 그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절반쯤 했을 때 그는 듣기 싫어했고, 파룬궁 얘기만 나오면 강한 반감을 보이며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악당에게 거짓을 너무 많이 주입받았고 사령(邪靈)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데다, 저 역시 그 뒤에 있는 다른 공간의 요인을 인식하지 못했던 탓일 것입니다. 이후 몇 차례 조심스럽게 다시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말할 때면 그는 몰래 듣고 있다가 대법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대체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막 목욕탕 문을 들어서자 그가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매우 거칠었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 욕이 저를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분이나 욕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때밀이 직원이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 어르신을 욕합니까? 방금 들어오신 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 어르신 얼마나 인자해 보이는데 왜 욕을 하세요?” 그제야 그는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욕한 거예요?” “과륜궁을 욕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 사람은 완전히 끝났구나. 더는 구제할 수 없겠구나.’ 과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사장과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공사 현장에 가서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쉬고 있는데 바닥 판이 떨어져 그 위로 떨어졌고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제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를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상을 알리는 방식이 잘못됐던 것은 아닐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가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던 다른 공간의 생명과 요소들 또한 해결돼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상은 모두 제 개인적인 실제 경험으로 기록으로 남겨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 중에서 안전 문제를 중시해야 하며, 휴대폰은 바로 도청기다. 이 법리를 사부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거듭 당부하셨지만, 어떤 수련생들은 시종일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한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지참하고 자료점에 들어갔다가 감시를 당하게 되면 지역적인 박해를 초래할 수 있고, 수십 명의 수련생이 연루될 수 있다. 어떤 이는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이는 납치되며, 어떤 이는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고, 어떤 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와 이런 수련생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먼저 일반인들이 안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중국 형법 제134조 [중대사고 책임죄 정의 및 양형]: “공장, 광산, 임업장, 건설 기업 또는 기타 기업, 사업 단위의 직원이 관리에 부종하지 않거나 규정 제도를 위반하여, 혹은 노동자에게 규정을 위반한 모험 작업을 강요해 중대한 사상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악질적인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개인의 관리 불복종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사상을 초래한 것은 범죄이며,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숲속의 흡연으로 화재를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거나, 조작 규정 위반으로 폭발을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대중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안전에는 작은 일이란 없으며,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미국의 듀폰사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한다”, “연필심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연필꽃이에 꽃아야 한다” 등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시를 엿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회사에서 6년간 근무한 직원이 기숙사 건물 아래층에서 흡연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있다. 비록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사유는 그가 안전 규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기업 관리에서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엄숙하고 수련이 엄숙하며, 그 기준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수련생들은 가족과 연락하기 편하다거나 정념(正念)이 강해 아무 일이 없었다는 구실로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마음대로 기밀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수련 중의 안전상 허점이며 안전 금기 사항으로, 법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문제를 생각함에 반드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매 한 명의 대법제자 그 핸드폰은 모두 도청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폭로되지 않았다고 하는가? 게다가 그 핸드폰은 아주 빨리 꺾이는데, 당신이 전화를 걸기만 하면 그 번호가 꺾이게 되며, 그런 후에 그는 도청시스템을 설정한다.” (각지 설법 15-2018년 워싱턴DC법회 설법)

“당신이 이렇게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데, 수련에서 빗나가게 깨

달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과시심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수련생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외의 수련생은 이런 사람을 사오했다고 여기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사오한 것이 아닌가?”(각지 설법 14-대법홍전 25주년 뉴욕법회 설법)

즉,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법공부 장소나 자료점에 가거나 거리에서 진상을 알릴 때, 행위상 이미 대법(大法)에서 벗어난 것이며 수련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엄중하게 말하면 이미 사오(邪悟)한 것이다. 그리고 구세력 역시 줄곧 사람 마음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고리마다 연결되는 교란을 안배하고 있다. 한 사람의 휴대폰이 연결되고 이 사람이 입단속[修口]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저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당신들을 모두 연결한 다음 납치하는 것이다. 안전을 소홀히 하고 안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구세력에게 박해할 구실과 이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안전 소홀과 안전 원칙 위반이 미치는 영향은 자신뿐만 아니라 몇 명, 혹은 수십 명일 수 있다. 법에 책임지고 사람에게 책임지는 태도로 수련하는 것이 진수(眞修)·실수(實修)이며,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진수·실수가 아니다.

만약 우리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인해 수련생이 교란받고 납치되며 박해로 사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역할은 구세력 및 중공 악당(中共邪黨)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며 정법(正法)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수련생이 우리 때문에 박해가 가중되고, 중생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며, 정법이 우리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이것이 죄과가 아닌가? 이것은 부처를 해치고 법

을 훼손한 산과 같고 하늘과 같은 죄이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행위가 방종해지면 정법을 파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깊이 잘 생각해 보라. 무섭지 않은가? 위험하지 않은가?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또 한 다른 대법제자 혹은 많은 대법제자에게 영향을 끼쳐 수련할 수 없게 했다면, 그것은 18층 지옥에 떨어져도 갚을 수 없는, 대법제자의 수련을 교란한 중죄(重罪)이다.”(2004년 뉴욕국제법회 설법)

“언젠가 나는 말했다. 사람이 대법을 파괴한 죄는 18층마저도 담지 못한다고. 당신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일 하나를 말했다!”(유럽법회 설법)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지난 허물을 철저히 고치는 것은 잘못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이성적인 태도다. 하물며 우리는 반드시 법 위에서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적색 테러 아래에서 힘들게 20여 년을 걸어온 우리는 모두 사부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수련생이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진지하게 대조하여 요행심이 없는지,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여 안전 법리를 위반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세심하게 고치고 지난 허물을 철저히 고치라. 그러면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다시 진수·실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안전을 소홀히 하고 안전 원칙을 위

반한다면, 여기서 당신은 수련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보기 바란다. 수련은 지극히 엄숙한 것이며, 어떠한 당연시하는 마음이나 아랑곳하지 않는 생각과 행위는 대법과 수련생,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한 것이며 사악이 박해를 가중하는 구실이 된다.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내부인으로, 무릇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모두 대법제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수련했든 그를 대법제자로 여기어 대하지 말라.”
(각지 설법 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대법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법은 오직 진수 제자만을 원한다.

26년 박해로 초래된 중국사회 도덕 붕괴에 대한 고찰

— 파룬궁 박해가 중국사회에 미친 심층적 영향을 보며 —

글/ 정옌(鄭岩)

[명혜망]

서문

1999년 이후,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는 이미 26년간 지속됐다. 이 박해의 영향은 수억 명의 파룬궁 수련자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사회의 운영, 가치 판단 및 도덕 심리 구조에 깊이 침투했다. 중공 관영 매체, 민간 매체 플랫폼(명혜망 등), 해외 탐사 보도(캐나다 인권 변호사 등)가 장기간 축적한 자료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사회 도덕의 최저선을 지속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10년 문혁(문화대혁명)이 중국인과 중국 전통문화 사이의 유대를 끊어놓았다면, 26년간 이어진 파룬궁에 대한 정치적 박해는 중국인의 전통 가치관과 도덕 이념에 치명상을 입혔다. 다시 말해 중국사회 안정을 지탱하는 초석을 더욱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1. 도덕 가치 체계가 사회의 안정을 결정하며, 진선인(眞·善·忍)은 모든 바른 도덕 가치를 포괄한다

공자(孔子)는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라고 말했다. 이는 도덕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통치자가 도덕을 수양하고 덕정(德政)을 베풀기만 해도,

강제나 엄한 형벌 없이 백성과 제후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도덕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구심력이자 안정시키는 힘이며, 사회가 오랫동안 평안하게 유지되는 근본이다.

맹자(孟子)는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혁명은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응한 것(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이라고 했다. 이 고사가 말해주는 것은 국가의 흥망이 무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덕을 잃은 자는 반드시 민심을 잃어 사회 동란이나 망국을 초래하고, 덕이 있는 자는 비록 처음에는 약소하더라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결국 사회 안정과 장기적인 평안을 가져온다.

‘사기(史記)·주본기(周本紀)’의 기록에 따르면 주문왕(周文王)은 덕이 성대해 천하를 셋으로 나눈 것 중 그 둘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 역사적 고사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도덕의 감화력이 자연스럽게 많은 민중을 진심으로 승복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저절로 안정과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왕조든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었지만, 어느 왕조에서나 도덕은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안정의 힘이었다. 그러나 중공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도를 배반하며 파룬궁을 탄압했다.

파룬궁과 도덕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파룬궁은 불가(佛家) 수련에 기초한 우주 대법(大法)으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이 세 글자에는 우주의 모든 바른 도덕 가치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믿기 어려운 독자는 조용히 앉아 깊이 생각해보라.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의 경전이 모두 진선인과 통하고 있으

며, 모두 진선인의 광대하고 원융(圓融)한 경계 안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우기만 하면 기초가 어떠한 건강과 도덕 양면에서 현저한 향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은 하늘이 중국에 내려준 진선인이라는 고덕(高德) 대법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며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했다. 소멸할 수 있었는가? 역사상 정신(正信)을 박해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명백하게도 27년째 접어드는 잔혹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으며, 중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공이 아무리 돈과 사람이 많아도 완전히 가릴 수 없다.

아래에서는 명혜망 등 매체 보도 중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해, 이 박해가 중국사회의 도덕 수준에 끼친 체계적인 영향을 알거나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중국사회 도덕 수준에 끼친 체계적인 영향

중화 5천 년 문명이 다져온 도덕 전통은 이미 10년 문혁의 재난을 겪으며 만신창이가 됐다. 1989년 ‘6·4’(천안문 사태)는 얼마나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다시 타오르던 사회적 양심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뛰어들게 했는가? 1999년의 파룬궁 박해 정치 운동은 이미 훼손된 중국인의 도덕 체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2026년 중국사회의 도덕 현황은 5천 년 역사의 긴 강물 속 그 어떤 예법이 무너진 시기와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 2025년 위명룽(于朦朧), 차오런량(喬任梁)의 참사 사건이 깊이 파헤쳐지고 폭로돼 수천만 젊은이들의 배척을 받은 연예계만 봐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영유아, 초중고생, 30세 이하

의 건강한 사람이 수시로 실종되고 ‘인광(人礦·인간 광물)’으로 취급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신주(神州) 대지의 전통 도덕은 신(神)에게서 온 것인데, 사람이 신을 배반하면 자신의 근본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데 사회가 어떻게 안정될 수 있겠는가? 순박한 민풍은 헛된 꿈이 됐고, 중국인을 기다리는 것은 전 국민의 도덕 타락과 전 국민의 재앙뿐이다.

1) 구체적 사례로 보는 도덕의 변이

(1) 거짓말의 전 국민화: 언론과 교육의 도덕 상실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으로 중공 중앙정법위 부서기 뤼간(羅幹)은 먼저 파룬궁을 ‘사교(邪教, 사이비교)’로 내정한 뒤 각급 공안에 파룬궁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1999년 이후 중공 관영 매체의 파룬궁 보도는 고도로 일치했으며, 계속해서 성격 규정(定性)을 먼저 하고 결론을 먼저 내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비판과 형사 탄압을 전개했다.

2001년 연출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수많은 경찰이 왜 소화기를 메고 순찰했는지, 주요 당사자의 온몸은 까맣게 탔는데 왜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스프라이트 병은 멀쩡한지 등 수많은 허점에 대해 당국은 해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 국내 언론은 24시간 내에 기사를 내고 성격을 규정해 전 세계에 방송했으며, 이를 박해 합법화의 핵심 서사로 삼아 전국적으로 학습과 태도 표명을 강제했고 심지어 초중고 교과서에까지 실었다.

그러나 이후 해외 매체, 학자 및 파룬궁 관련 플랫폼(명혜망 포

함)은 화면의 디테일, 인물 신원, 의학 상식 등에 대해 대량의 의문을 제기했다. 사람들이 이 의문들을 접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실은 이미 성립됐다.

‘주류 언론은 중공의 요구에 따라 중대 공공 사건에서 검증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포기하고, 오직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복무한다.’

이런 행태는 26년을 거치며 중국사회 전반에서 진상이 더 이상 뉴스 도덕의 핵심이 아니게 만들었다. 당을 따르고 ‘정확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고 도의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해졌다. 청소년들은 교실과 매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단일 서사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고,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형성됐다. 26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민감도와 정의감은 심각하게 약화됐다.

(2) 전 사회적 의료 도덕의 붕괴: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살인 협조로

명혜망은 장기간 다수의 파룬궁수련자가 구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 있는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도 정상적인 치료를 박탈당했고, 심지어 용도를 알리지 않은 채 강제 신체검사와 채혈을 당했다고 폭로해왔다.

이런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역할이 있다. 용도를 묻지 않고 ‘규정대로’ 처리하는 의사, 양심을 거론하지 않고 지시를 수행하는 간호사, ‘상부의 요구’를 도덕적 면책 사유로 삼는 관리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영향은 단지 개체 생명

에 대한 상해에 그치지 않고 전체 업계 도덕에 대한 침식이다.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한다(救死扶傷)’는 원칙이 당성(黨性), 돈, 정치적 임무에 양보해야 할 때 의료 전문성의 도덕적 기반은 흔들리게 된다. 백의의 천사는 백의의 악마가 되어 살인하고 장기를 적출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천리를 거스르는 짓에 대한 두려움마저 잃어버렸다.

그제 ‘인광’으로 취급돼 살해당한 것은 비밀리에 감금된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였고, 어제 ‘인광’으로 살해당한 것은 학교에서 기숙 하던 고등학생 후신위(胡鑫宇)였으며, 상야(湘雅)병원의 생체 장기적출 진상을 폭로하려다 투신 자살로 위장된 의로운 의사 뤼쉬이위(羅帥宇)였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은 누구인가? 도덕적 최 저선이 없는 사회는 악마의 세상과 다를 바 없다.

(3) 사회의 냉담화: 모두가 위험을 느끼는 도덕적 위축

폭력과 피비린내 앞에서 사회가 냉담함에 익숙해지면 악은 거 침없이 횡행한다.

명혜망에는 수많은 사례가 기록돼 있다. 수련자가 납치될 때 이웃들은 그가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문을 닫거나 피하고, 심지어 지목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행위가 반드시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며 공포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도덕 원칙을 포기한 전제하에 ‘이성적 자기보호’가 보편화됐다는 것은 동정이 위험한 행위가 되고, 선량하게 남을 돕는 것이 갈취당하거나 법정에 서게 될 일이 되며, 도덕적 선택이 점차 ‘말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결별서를 쓰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게 하겠다!”

전체 사회가 이런 심리 구조로 훈련되면 공공 도덕은 더 이상 공유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부담이 된다. 심지어 많은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의 마음속에서 ‘도덕’과 ‘양심’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사람은 개미나 늑대가 아니다. 도덕과 양심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아니라, 개개인과 지역 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데 관계된 초석이다.

2) 대량의 보도에서 귀납한 도덕 추세

(1) ‘정치적 올바름’이 ‘도덕적 올바름’을 대체

20여 년간의 언론 자료를 종합하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를 귀납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그것이 선량하고 합법적이며 비폭력적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와 당의 명령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보도에서 파룬궁수련자는 가족 구성원, 우수 직원, 준법 시민으로 묘사되지만, 이런 도덕적 품성과 사회적 역할은 당의 정치적 성격 규정 앞에서 모두 효력을 잃는다. 이는 사회에 강렬한 신호를 보낸다. 도덕과 양심은 안전과 생존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당을 따라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어떠한가? 진선인 신앙을 지키는 파룬궁수련자들은 정치적 박해 속에서 겹겹이 상처를 입었지만,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당이 동포를 박해하는 도구가 되어 업보를 향해 가고 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 전 국민의 원칙 포기: 폭력의 일상화

명혜망이 장기간 폭로한 박해 사례를 보면 참여자 중 다수가

‘극단적인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경찰, 교도관, 지역사회 직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제가 개별적인 도덕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이 집권한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정상인에게 비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한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인이 공포에서 시작해 점차 사고를 포기하고 양심을 포기하며, 자신과 타인의 비도덕적 행위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언론을 예로 들어보자. 관영 언론은 모든 종사자에게 고강도 교육을 실시해 그들이 당의 돈을 받고 당의 밥그릇을 들고 있으니, 일할 때는 양심, 공평, 정의를 뇌리에서 지우고 당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쓰라는 대로 써야만 당이 준 밥값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당의 밥그릇은 누가 준 것인지, 당의 돈은 어디서 왔는지는 교육에서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다.

생체 장기적출을 또 다른 예로 들어보자. 의료진의 명령 복종, 침묵을 통한 생존, ‘법은 많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法不責衆)’는 요행심리는 사회도덕 퇴화의 전형적인 징표다.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人命關天)’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낮에 두툼한 지폐 뭉치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현재 생체 장기적출의 장기 공급원은 파룬궁수련자에서 전 국민,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 이것은 전 국민이 도덕적 최저선 수호를 포기한 후 전 국민이 직면하게 된 위험한 결과다.

(3) 교육의 역방향 시범 효과

속담에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낫다(言教不如身教)”라는 말이 있다. ‘진(眞)·선(善)·인(忍)’을 제창하

고 실천하는 집단이 정부나 언론에 의해 장기간 악마화될 때, 사실상 사회에는 역방향 시범이 형성된다. 진실함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선량함은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며, 인내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공의 끈질긴 파룬궁 박해는 중국인에게 공포에 기반한 가치관을 전달했다. 정의와 양심은 나와 무관하며, 진상과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돈, 권력, 색욕이 훨씬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거의 ‘소뱀귀신(牛鬼蛇神)’처럼 거짓말에 의해 매도당하고 악의적인 비판을 받으며 심지어 노동수용소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 때,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경고성 교육을 받게 된다. “도덕을 포기하라, 원칙을 논하지 마라,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라. 정글의 법칙, 적자생존이다.”

중국의 아동은 어릴 때부터 붉은 세뇌 속에 잠겨 있다. 아이들은 미국을 증오했고 일본을 증오했을 줄은 알지만, 중국인이 화(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모르며,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기본 함의는 더더욱 모른다. 초등학생들은 파룬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안색이 변하지만, 파룬궁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질병 치유와 건강 증진, 도덕 향상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

파룬궁 박해 25년 후, 중국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는가? 몇 가지 예를 보자.

2006년 난징(南京)의 평위(彭宇) 사건에서 판사가 한 말 “당신이 치지 않았는데 왜 치료비를 대납했는가”는 사람의 선념(善念)과 양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2011년 광둥(廣東)에서 샤오웨웨(小悅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은 고의로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쳤고, 이후 18명의 행인이 지나갔지만 보고도 못 본 척했으며 아이의 생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행인들의 태도는 중국인의 도덕적 냉담함을 반영하며 사회 전체의 도덕 붕괴를 투영한다.

2024년 스위스에서 중국 유학생이 유아 3명을 흥기로 찢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재학 중인 대학에서 ‘대만 주권 강연’을 개최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 원인이었다. 호주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백인 남자아이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용의자의 중국인 친구는 그가 비자 거절 때문에 백인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쑤저우(蘇州)와 선전(深圳)에서는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흥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미성년자의 악성 범죄도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한 중국 언론인은 “그 배경 원인은 중공 정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최악적인 학살주의 교육을 배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1년 전 국민에게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가르친 것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증오 교육은 극에 달했다. 냉담한 중국인의 눈에 증오와 살육은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평범한 일이 된 듯하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 독기, 증오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은 자존감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들이 순리대로 순수하고 선량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己所不

欲勿施於人)’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폭력성을 제거하고 두터운 도덕적 소양을 갖추 중국사회를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 예의지국으로 건설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 올바른 도덕적 인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

3) 어떤 사회든 평화롭고 비폭력적이며 도덕 수련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을 장기간 탄압하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도덕에 대한 신뢰와 실천 능력을 약화시킨다

1999~2025년, 중공은 국가 기구를 동원해 언론, 사법, 교육, 의료, 기층 관리 등 다중 시스템을 통해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했고 전 사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전 사회의 공공 도덕은 정치화됐고, 양심은 가장자리로 밀려났으며, 냉담함이 이성적인 선택이 됐고 거짓말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사라진 것은 양심뿐만이 아니다. 충분히 ‘분홍색(친중공 성향)’이지 않거나 이치와 사실을 따지려 하는 중국인은 누구나 가장자리로 밀려날 수 있다. 아이는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고, 환자는 병원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화장장의 시신도 바뀌치기 당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중공의 본성이 결정한 것이며, 중공 집권의 필연적인 결과다.

3. 맺음말

1999~2025년의 26년을 회고하며 언론 보도와 대량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수많은 선량한 개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의 도덕 생태계를 심각하

게 변화시켰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데 익숙해지게 했고, 거짓말을 강자의 능력으로 여기게 했으며, 권력 앞에서 도덕과 양심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사람들이 신을 배반하고 거짓말에 익숙해지며 폭력과 공포를 ‘당연한 것’으로 말하는 데 있다.

사람 마음의 선악(善惡)은 신의 눈이 번개같이 지켜본다. 사회 도덕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는 어떠한가? 국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트기 전의 어둠, 문혁이 끝나기 전의 광기처럼, 이 파룬궁 박해 정치 운동은 이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최후의 도덕적 타락 속에서 중국인은 과거 문혁의 앞잡이들처럼 벼랑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사회의 양심을 지지할 것인가? 결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결말을 얻기를 바란다.

유럽의 전통 문명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가?

글/ 우징(宇澄)

[명혜망] ‘유럽의 기묘한 죽음(The Strange Death of Europe)’은 영국 작가 더글러스 머리(Douglas Murray)가 2017년에 출간한 정치·문화 평론서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 문화에 대한 자기부정, 정치 엘리트의 무능으로 인해 점차 자신의 문명적 전승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머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21세기 초에 유럽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대규모 이민 물결이 문명 차원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대규모 이민자들은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 문화권)에서 유입됐으며, 이들은 유럽의 문화와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종교(특히 이슬람교와의 관계), 법치,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유럽의 주류 문화와 심층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유럽이 전제로 삼았던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민자들이 출신 지역의 문화를 통해 유럽 사회의 문명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부정하는 기조가 지속돼 온 교육과 여론 환경 속에서 자국 문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대규모 이민이 초래한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로 기묘하다. 유럽은 공산주의 유령의 발원지

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명의 빛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 문명의 핵심 가치관은 주로 ‘선조들의 관습’을 뜻하는 ‘모스 마이오름(mos maiorum)’에 구현되어 있으며, 신(神)과 국가, 부모, 가문에 대한 존경과 책임 의식이 로마 가치관의 초석을 이뤘다. 침착하고 무게감 있으며 경박하지 않고 성숙함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기질은 고대 로마인들이 중시한 덕목이었다. 그들은 개인과 가문이 사회에서 누리는 명성과 존중은 모두 공적과 품행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역경 속에서도 평정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태도는 확고함과 꾸준함, 인내의 구현으로 간주됐다.

“훌륭한 로마인이라면 신과 가문, 국가에 대해 경건하고 충성해야 하며, 장중하고 굳건한 태도로 명예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영어에서 품성과 관련된 많은 어휘, 즉 미덕(virtue), 경건(piety), 충성(fidelity), 장중함(gravity), 존엄(dignity)은 모두 이러한 로마의 가치관에서 직접 유래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는 어떠했는가? “훌륭한 그리스인이라면 이성과 절제를 통해 개인의 탁월함(aretē)을 추구하고, 명예와 도시국가에 대한 책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며, 운명과 신 앞에서 겸허함을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원만한 행복(eudaimonia)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유럽의 엘리트들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됐을까? ‘유럽의 기묘한 죽음’의 저자는 전후 유럽이 식민주의, 파시즘의 만행, 나치의 역사로 인해 깊은 도덕적 자책에 빠지게 됐다고 본다. 이러한 성찰은 본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세력의

의도적인 호도로 인해 유럽의 교육과 여론을 지배하는 주류 사상은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이는 미국의 학교들이 수년간 청소년들에게 미국의 가치와 문화를 부정하도록 훈련해 온 흐름과 유사하다. 그 결과 유럽 문명 자체를 부정하고 ‘유럽 문화’를 옹호하는 일은 회피의 대상이 됐으며, 모든 문화적 비판은 곧바로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낙인으로 치환됐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논쟁을 감수하기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굳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머리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예컨대 2015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난민 개방 정책과 킬른 새해 전야 성폭력 사건 이후, 정부와 언론이 사건의 성격을 초기에는 축소해 ‘정치적 올바름’이 이미 공공 안전과 솔직한 사회적 논의 위에 공공연히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런던은 집단 간 분화가 극도로 심화된 사회로 변모했으며, 로더럼 성폭력 추문(1997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의 백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당국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1400명의 소녀에게 법적 정의를 찾아주지 못했다. 영국 본토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사례들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자기검열이 초래한 결과로 제시된다. 스웨덴에서는 높은 비율의 난민 수용이 범죄율 급증과 사회적 신뢰 약화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토론은 장기간 제한돼 왔다. 머리는 이처럼 자기검열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유럽인들의 정신적 삶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혼동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신과 국가, 부모와 가문에 대한 존경과 책임감을 포기했다면, 그것을 여전히 서구 문명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자가 책 제목에서 지적한 ‘기묘한 죽음’은 즉각적인 붕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비폭력적으로, 지속적인 자기 문화 부정 속에서 서서히 빚어진 문명의 죽음을 의미한다. 머리는 유럽인들이 전쟁의 폭력에 의해 ‘정복’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유럽 문명이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자기검열’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유럽 문명의 ‘기묘한’ 죽음 방식을 중국의 10년 문화대혁명과 비교해보면, 국가 전체가 전면적인 자기부정에 나서고 사상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말살하며 언론의 자유를 폭력으로 취소하고 전통문화를 소멸·파괴했던 그 광기 어린 방식에 비해 분명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덜 폭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행은 비록 우아하고 점잖을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신이 전한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세부터 근대 초기, 대략 5~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은 자신의 문명이 신이 내려주신 것이며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믿었다. 기독교(특히 가톨릭)는 유럽 문명의 핵심으로 여겨졌고, 로마 제국과 기독교 문명, 기독교 왕권은 모두 신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어진 연속체로 이해됐다. 16~19세기에 이르러 유럽인들은 신학적 확신과 강한 우월감이 결합된 인식을 바탕으로 항해와 식민 확장에 나섰으며, 당시

그들의 문명적 우월 의식은 매우 강했다.

당시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동방의 중심국에서 이미 5~10세기(남북조에서 수·당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이 행정 능력, 도시화 수준, 기술, 경제 규모 전반에서 동시기 유럽을 전면적으로 능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1~13세기(송대)는 중국이 유럽에 비해 ‘문명적 우위가 가장 컸던’ 시기였다. 14~16세기(원 말기에서 명대)에 이르러 양측의 격차는 점차 축소됐지만, 국가 통치와 사회 통합 능력 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더 성숙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17~18세기 초중반(청나라 전·중기)에 이르러서야 뉴턴과 갈릴레이가 등장하고, 식민 체계가 자원과 자본을 유럽으로 끌어들이면서 유럽은 과학기술, 군사, 제도 혁신 역량에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곧 산업혁명에 진입하게 됐다. 동서 반구의 인류는 모두 신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복이 아니면 화이고, 화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다. 17~18세기의 계몽운동은 유럽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고, 인간의 이성이 신의 뜻을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문명은 더 이상 주로 ‘신의 은혜’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이성과 제도,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낸 산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볼테르와 독일의 칸트 등은 역사는 신의 각본이 아니며, 문명은 인류가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18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사조가 등장했다. 이들은 계몽운동의 합리주의가 지나치게 치우쳤다고 보았고, 예술과 과학을 포함한 지식의 발전이 반드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었지만, 그 결과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됐

다는 인식이었다. 중국의 왕조 교체와 서구 역사에서 반복돼 온 순환은 어찌 인류가 신의 귀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신성(神性)에 대한 시련과 수호, 상실과 회귀의 반복이 아니겠는가?

지난 세기 1960년대 서구의 반(反)문화 운동 속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새로운 형태의 사상경찰로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사실상 유럽인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인질로 삼아 사람들의 언론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또 다른 저서인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는 여러 측면에서 ‘유럽의 기묘한 죽음’이 제기한 현상을 설명해 주며, 그 사유의 깊이 또한 한층 더 심오하다. 물론 무신론·진화론·유물론이 대량으로 주입된 수 세대의 서구인들에게는 일정한 독서의 문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서를 즐기는 이들, 그리고 정신적 차원과 문화 변천의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고를 지닌 이들에게 이 책은 정수(精華)에 가까운 정보 밀도를 지닌 지적 보물창고라 할 만하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유를 억압해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를 사고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피상적이고 저속하며 자극적인 오락에 쉽게 빠지게 만들며, 결국 개인적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다.

낙관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인들 사이에 신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상경찰이자 정신적 감옥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문명적 가치를 완전히 말살할 수 없으며, 유럽의 전통 문명 또한 죽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신이 이미 돌아왔음을 보게 되는 날, 전통 문명은 역사상의 그 어떤 과거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미래의 그러한 찬란함을 볼 수 있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른 믿음을 지니고 선량함을 견지하며, 감히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만이 될 것이다.



▲ 2026년 1월 4일, 한국의 서울 텐티북스(天梯書店)에서 《전법륜(轉法輪)》 출판 3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50여 명의 참석자는 한목소리로 《전법륜》을 낭독하고, 《전법륜》을 읽고 수련한 후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공유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0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724만 728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